

후보도서

《옥새》 민홍규 지음 | 인디북 | 374쪽 | 값 55,000원

옥새는 임금의 도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 전통문화의 또 다른 예술적 결정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최고의 옥새전장으로 알려진 저자는 전통 옥새의 제작기법과 옥새 전각의 의미와 철학, 옥새의 제작의례, 영새부를 통한 옥새제작의 비전 등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우리 문화의 백미를 맛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저작이다.

《문학의 오역》 이재호 지음 | 동인 | 384쪽 | 값 15,000원

잘못 번역되거나, 오히려 오류로 범벅된 수입문화는 공해나 다름없다. 책은 문학작품과 영화, 음악, 발레, 미술 등 문화 각 분야에서 잘못 번역되거나 소개된 사례를 일일이 적시하고 있다. 특히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등 문학 오역이 많은 책을 거명하거나, 수능 언어영역 문항의 오류를 비판하기도 해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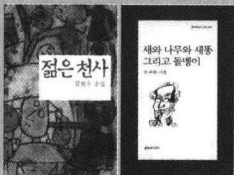


《젊은 천사》 김원우 지음 | 세계사 | 286쪽 | 값 9,500원

중견 소설가 김원우의 중편 모음집. 지식인 사회의 굴절된 모습을 꼬집는 중편 '젊은 천사'와 '벙어리의 말' 두 편의 소설이 실려 있다. <젊은 천사>는 지방대학 교수인 주인공을 내세워 교수 사회의 부조리를 묘사한다. <벙어리의 말>은 문예창작과 교수인 주인공 '나'의 지적적 기록을 통해 국내 문단의 애국된 풍토를 고발한다.

《새와 나무와 새똥 그리고 돌맹이》 오규원 지음 | 문학과지성사 | 140쪽 | 값 6,000원

오규원 시인의 이른바 '날이미지시' 54편이 수록돼 있다. '날이미지시'는 개념화되거나 사변화되기 이전의 의미, 즉 '날(生)이미지'로서의 현상과 그 현상으로 이루어진 시다. 나무, 강, 숲, 하늘, 그림자, 풀, 해, 별, 집, 국화 등 언어에 의해 유희되지 않은 세상과 사물의 '날 것' 그대로의 이미지가 원색적 감동으로 전해진다.



《시마천 애덤스미스의 뺨을 치다》

오귀환 지음 | 한겨레신문사 | 252쪽 | 값 12,500원

'새로운 역사, 고구려 정화, 아메리카를 발견하다' 인류 최고의 경영자, 요셉 '부자의 철학'시마천, 애덤 스미스의 뺨을 치다 등 인물을 통한 '역사 뒤집어보기'를 시도한 책이다. 지은이 특유의 지적 역발상을 바탕으로 역사적 인물 20여 명의 행적과 그 현대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있다. 시사주간지 <한겨레21>에 '디지털 사기열전'이란 이름으로 연재되기도 했다.

《세계모지문화기행》 박태호 지음 | 서해문집 | 352쪽 | 값 14,900원

동서고금을 막론한 세계의 모지문화를 소상히 소개한 책이다. 모지와 장례는 각기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배경이 투영된 또 다른 '삶'의 모습이다. 저자는 프랑스의 박물관급 모지를 위시해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독일 등지의 모지를 보고 느낀 대로 소개한다. 또 신대륙의 전통과 심성이 깃든 미주의 장례와 모지를 소개하는 한편, 우리 장례문화를 새삼 들여다보기도 한다.



《옥수수빵피랑》 이우일 글·그림 지음 | 마음산책 | 216쪽 | 값 9,900원

읽고 보는 이 제멋대로의 해석을 부정하고, '오로지' 니체만을 보고, 그것을 내재적으로 분석하길 권하는 새로운 니체철학서다. 저자는 특히 부정과 해체 대신 긍정과 창조를 시도한 철학자로 니체를 사유하고, 모든 생성과 필연을 뒷받침하는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긍정'에 주목할 것을 설파하고 있다. 모처럼 진지한 사색을 체험케 하는 책이다.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백승영 지음 | 책세상 | 718쪽 | 값 27,000원

시진가 네트워크 '이미지프레스'의 작품이다. 디지털 문화에선 느낄 수 없는 영상 이미지와 정취를 자아내기 위해 이들은 나름대로 사진을 담은 노력을 거듭해 왔다.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계 인사들이 좋아하는 한 장의 사진 등 다양한 앵글로 엮어진 책이다.



《신선한 생선 사나이》 김종은 지음 | 창비 | 296쪽 | 값 9,500원

<프레스 피시맨> 등 9편의 단편소설을 묶은 소설집. 이들 작품은 <프레스 피시맨>이 그렇듯, 대부분 해학적 묘사와 상징, 대상에 대한 의도된 왜곡과 유희가 넘쳐흐르는 것들이다. 스토커의 실제 여부를 두고 어느 것이 진짜 기억인지를 캐는 <길>, 그리고 <세일즈맨의 하루는>, <메모리> 등은 특히 시니컬한 현실인식과 문제의식이 돋보이는 문제작들이다.

《한국전쟁》 박태균 지음 | 책과함께 | 408쪽 | 값 16,800원

정념이 땅 사람들은 한국전쟁의 의미를 잘 알고 있거나 한가. 이 책은 회귀자료와 생생한 고증을 통해 한국전쟁의 기승전결을 날카롭게 꿰고 있다. 해방 직후 이념적 구도의 재해석과 그로 인한 분단구조, 그리고 전쟁발발 후 북한인민군의 전략적 의도와 미국의 핵공격 계획 등 잘 알려지지 않았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한 '한국전쟁 바로 보기'를 시도한다.

